

“지지부진 도시정비, 차라리 취소해주요”

경기 침체·사업성 부족에 장기간 미개발 방치 생활불편 키워

광주 정비구역 주민요청에 잇단 해제...슬럼화 방지책 마련돼야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비롯, 광주 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불화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자칫 노후 주거지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슬럼화될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구 동명 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동명 1구역 내 토지·주택을 소유한 전체 주민 508명 중 절반 이상인 262명(51.6%)이 구역 해제를 요청, 삼 한 번 못뜨고 해제됐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동명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동명동

241번지 일대 8만2915㎡의 낡은 주거지를 개발해 공동주택(3만3721㎡)을 건설하고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008년 구성된 이후 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2013년)된 지 5년 가까이 지나도록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해 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급속히 쇠락했고 주민 불편만 커져갔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거주하는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도 제한을 받아 주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랐다. 사업성이 낮아 노후주택을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는 등 해당 구역 정비를 맡아줄 건설업체를 구하지

못한 점도 원인이 됐다.

결국 주민들은 수십년간 노후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을 참을 수 없어 주택재개발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는 게 동구 설명이다.

앞서 남구 월산 2구역과 동구 금동 1구역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낡고 오래된 주거지에 사는 불편함을 참다못한 주민들의 요청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정비구역 해제’ 이후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슬럼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인데, 개발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주거환경은 더 나빠지고 이대로 시간이 가면서 우범화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얘기다.

당장, 동구의 경우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해제된 금동, 동명동, 산수

동에만 빈집이 159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 등이 주민조합, 건설업체 중시의 전면일괄적인 공동주택 개발 방식 대신, 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색있는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28개), 주택재건축사업(16개), 도시환경정비사업(7개), 가로주택정비사업(1개), 주거환경개선사업(70개) 등 122곳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전, 도미니카 EV 충전인프라 시스템 개발 착수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일 도미니카 PUCMM 대학에서 도미니카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 산학협력 R&D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상민 ESD 대표이사, 한상규 한전 신사업개발실장, 알프레도 데 라 크루즈 발데라나 PUCMM대학 총장. <한국전력 제공>

산학협력 R&D 컨소시엄 협약...기업·대학에 운영기술 전수

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시호)는 지난 3일(현지시간) 도미니카 산토도밍고에 소재한 PUCMM 대학에서 ‘도미니카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R&D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한상규 한전 신사업개발실장, 알프레도 데 라 크루즈 발데라나(Alfredo de la Cruz Baldera) 도미니카 PUCMM 대학총장 그리고 현지 한국기업인 ESD 최상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표준 기반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 시스템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KOICA에서 30만달러 규

모의 자금을 지원 하고 한전의 충전인프라 운영기술을 현지 기업과 대학에 전수하는 형태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개발 된 시스템은 도미니카 국가 표준으로 지정돼 향후 국내기업이 도미니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호 한전 사장 직무대행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해외 최초로 도미니카에 실증하게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제표준 기반의 운영시스템 개발을 통해 도미니카 충전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8.06 (-34.37)

↓ 금리 (국고채 3년) 2.17% (-0.03)

↓ 코스닥 862.51 (-9.81)

↑ 환율 (USD) 1059.80원 (+5.60)



효성, 인도네시아 섬유시장 공략

7일까지 자카르타 인터텍스 참가...원사·원단 선보여

효성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효성은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섬유산업 전시회 ‘인도 인터텍스’에 참가한다.

인도 인터텍스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섬유·가공기계 전시회로, 원단이나 원사뿐 아니라 섬유 관련 가공기계와 장비, 최신 기술도 전시된다.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6년째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는 현지 로컬

브랜드와 손잡고 프리미엄류, 애슬레저류, 무슬림 액티브웨어 등에 쓰이는 원사와 원단을 선보인다.

신축성이 뛰어나 편안함과 멋진 핏을 선사하는 데님용 스판덱스 크레오라 핏스퀘어를 적용한 ‘프리미엄 데님’ 원단, 부드러운 촉감의 크레오라 에코소프트를 사용한 ‘란제리’, 스판덱스 원사가 적용된 무슬림웨어 등도 전시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는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성공 결의대회

농협전남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3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서 전남농협 임직원을 대표해 김영철 나비골농협 조합장이 사업 성공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전종화 전남도 농식품국장이 수확기 쌀값 전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쌀 생산조정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종목 농협중앙회 상무는 사업성공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정부가 구조적으로 과잉생산되는 쌀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벼농사를 지었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은 현재 목표면적(1만698ha) 대비 신청률 50.1%(5362ha)를 달성하는 등 전국 목표(5만ha) 달성률 34.8%(1만7394ha)를 뛰어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부동산 경매시장 ‘찬바람’

지난달 전국 3213건 역대 최저...광주·전남 낙찰률 44%

전국 부동산 경매 진행 건수가 지난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주·전남도 경매 물량이 전달에 비해 줄었다.

4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전국 부동산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8104건, 낙찰 건수는 3213건을 기록했다.

지난달 경매 건수는 전월보다 1807건 줄어 2001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광주 지난달 경매 건수는 165건으로 전달(181건)에 비해 줄었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154건)보다 증가했다. 광주 낙찰건수는 75건(낙찰률 45.5%)으로 전월(77건·낙찰률 42.5%)보다 2건 줄었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58건·낙찰률 37.7%)보다 많았다. 전남도 지난달 경매 건수는 698건으로 전달(780건)보다 감소한 반면, 전년 동기(670건)보다는 많아졌다. 지난달 전남 지역 경매 낙찰건수도 282건(낙찰률 40.4%)으로 전달324건(낙찰률 41.5%)보다 감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다시 태어난 자세로 금호타이어 재건”

김종호 회장 사내 게시판에 글...직원들에 격려 메시지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기업인 터블스타로의 매각이 결정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금호타이어 김종호 회장은 4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임직원,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자”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낸 것에 대해 현장사원과

일반직 사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회사 경쟁력을 시장 중심에서 찾아야 하며 금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국내 대리점과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별도의 글도 올려 브랜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였다. 김 회장은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겨 대리점 판매에 활력을 제공하겠다”고 제품 공급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자연의 소리...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원
(VAT포함)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통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2018 Dinner Show

남궁옥분

임백천

이치현과 뽀니뽀